

# 書誌學의 研究方法

李 姬 載\*

## 〈目 次〉

I. 序	1. 東 洋
II. 定義 및 概念	2. 英語圈
1. 用語의 성립과 변천과정	3. 佛語圈
2. 定義와 研究範圍	IV. 展開方向을 위한 提言
III. 研究方法의 諸理論	V. 結

## I. 序

本考가 다루려는 주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소간의 異見이 있거나 광범위하게 논의되는 書誌學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方法論의 一研究로 채택된 것이다. 方法論의 확립은 특히 合理主義 시대를 거치면서 강조된 현대적 개념으로서 어떠한 학문에서건간에 가장 중요하고 先行되어야 할 學的 접근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인간에 의해 생성되는 모든 생각과 技術이 表出된 圖書가 書誌學의 대상이라는 廣範圍性으로 인해 그 방법론은 지금까지도 정립 또는 수정되어가고 있는데 서양의 그것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끊임없이 연구검토되면서 한 단계씩 기반을 쌓아온 과정인 것에 반해 동양의 그것은 구체적이고 學的인 이론이 결핍된 상태에서 대상 그 자체만을 검토하는 방법론의 不在現象,

\*숙명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 부교수

또는 跛行성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같은 취약성은 더욱 심각하다 할 수 있는데, 흔히 용어조차 생소하게 받아들이는 일반인들은 물론 도서관과 연관이 되는 전문학계에서조차 書誌學의 개념 자체를 편향적이거나 축소화시켜 받아들이는 경향이 심하다. 書誌學을 체계적으로 정립시키려는 既存의 논문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시기적으로 다소 오래 되었고 그 용어를 빌어온 西歐의 체계, 특히 bibliographie와 bibliologie를 命名한 최초의 국가이자 學的인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경주한 프랑스의 연구방법에 대한 소개가 부족하거나 거의 없어 미흡한 것이었다.

本考 역시 완전한 연구방법론에는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생각되나 우선 歐美의 이론을 두루 소개하고 재정리하여 다각적인 연구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書誌學界에 보다 다변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연구활동을 진작시킨다는데 그 일차적인 의의와 목적을 두었다.

## Ⅱ. 定義 및 概念

### 1. 用語의 성립과 변천과정.

周知하는 바와 같이 書誌學이라는 단어는, 비록 동양에서의 同 분야의 연구가 古來로 부터 있어왔다 해도, 자체내에서 오래 전부터 전래된 것이 아니고 希臘어인 bibliion과 graphein의 합성어로 형성된 英語의 bibliography, 佛·獨語의 bibliographie의 譯語이기 때문에 동양에서의 개념이 서양에 비해 보다 애매모호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더우기 譯語로서의 書誌學이란 말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전통적인 용어가 아니라 今世기를 전후하여 일본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을 도입한 것이라 그다지 만족할만한 것도 아닌 듯 보여진다. 앞서 말했듯이 광범위하게 도서를 대상으로 하는 學이라는 이유로 이와 관련된 단

어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몇가지가 혼용되기도 하고 분과에 따라 따로 불리우기도 하는데, 學的體系의 도입과정에서 포괄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쉽게 文獻學이라든지 圖書學이라고 稱名하였다면 학문의 성격을 일반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굳이 용어의 적합성 여부를 거의 1세기가 되어 가면서 나름대로 뿌리를 내린 시점에서 들추어 낼 필요는 없을 듯 싶다. 後述되어질 용어의 변천과정에서와 같이 앞으로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되거나 또는 세분화되면서 각각의 명칭으로 불리울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書誌學 관계의 諸名辭를 살펴보면 東洋의 경우 藝文志, 經籍志, 經籍考, 文籍志, 書籍志, 書籍考, 書籍學, 圖書學, 書志, 書寫學, 文獻學, 目錄學, 書目志, 書目學, 解題學, 板本學, 校勘·校讎學등이 있으며 英語로는 bibliography(bibliographie ; 佛, bibliographie ; 獨), bibliology(bibliologie ; 佛, bibliologie ; 獨), philology(philologie ; 佛, philologie ; 獨) 및 그밖에 book science, science of books, knowledge of books (science bibliographique, la connaissance des livres ; science des livres ; 佛, bücherwissenschaft ; wissenschaft Von den büchern ; wissens üben die bücher ; 獨)등이 있다.<sup>1)</sup>

이 중 포괄적이던 부분적이던 대표될만한 것을 꼽는다면 동양에서는 書誌學을 비롯, 圖書學, 文獻學, 目錄學, 板本學, 校勘·校讎學과 서양의 bibliography, bibliology, philology를 들 수 있다.

그러면 오늘날의 書誌學을 탄생케 한 bibliography(ie)는 어떻게 성립되고 변천되었는가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bibliology(ie)와 philology(ie)라는 용어를 등장시키면서 설명되어진다. 우선 bibliography와 bibliology가 성립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L.-N.말플레스(Louise-Noë-

1) 小見山壽海, “書誌學”, 河東鎬譯編「書誌學」, (서울: 塔文化社, 1979) pp.14-18을 기본으로 하되 가감과 수정을 가했음.

lle Malcès)의 연구가 필수불가결한 자료로 간주되며<sup>2)</sup> 이를 요약하고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희랍어 *biblion*=도서, *graphein*=쓰다에서 유래되어 “도서에 대해 쓰다”로 轉義된 *bibliographie*(y)는 본디 著述 타이틀의 收錄目錄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 타이틀의 수록목록은 15C 活字印刷術이 발명된 이후부터 구체적인 개념으로 형성되었지만 그 연원은 고대 희랍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즉 희랍의 의사인 끌로드·갈리앙(Claude Galien)<sup>3)</sup>은 2C에 그가 쓴 *De libris propriis* 라는 저술에서 《저작의 일람표》와 같은 뜻으로 서지적 개념의 첫 표현을 했다. 같은 개념의 저술 목록은 聖제롬(Jerome), 제나디우스(Genadius)司祭, 聖이시도루스(Isidorus), 베다(Beda)尊者로 이어지면서 轉寫되었으며 특히 인쇄술의 발명후 첫번째가 되는 베네딕트 사원의 요한 트리테임(Johann Trithem, 1462-1516) 司祭가 만든 *Liber de scriptoribus ecclesiasticis*가 1494년 바렐, 1512년 빠리, 1531년과 1546년 쾰른에서 각각 출판된 이후부터 이러한 목록은 빠른 속도로 출간되기 시작했다. 이 때부터 이 개념은 주로 *bibliotheca*, *catalogus*, *repertorium*, *inventorium*, *index*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다가 1633년 마자랭(Mazarin)추기경 도서관의 事務長이자 司書였던 G.노데(Gabriel Naudé)가 *Bibliographia politica*<sup>4)</sup>를 냄으로써 처음으로 프랑스에서 *bibliographie*라는 단어의 출현을 본 것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명칭도 내용상의 수정을 가져온 것은 아니었으며 17C 후반 유명한 목록들이 學界의 주목을 끌게 되고 一般國家書誌가 새로운 형태

2) Louise-Noëlle Malcès, *La bibliographie* 4<sup>e</sup> éd, (Paris:PUF, 1977)pp.5-11. 이 부분은 本人譯의 “Bibliographie의 목적과 정의”(『圖書館』Vol 40 No 2, 1985. 3·4, pp.59-64)를 참조할 것.

Malcès는 또다른 그의 저서 *Manuel de bibliographie* (Paris:PUF, 1985)에도 이 연구를 실고 있다.

3) 희랍명 : 클라우디우스·갈레누스(claudius Galenus)

4) 철학자로서건 사학자로서건 간에 정치에 대해서 쓴 저자들에 대해 다룬 라틴어 저술이다.

로 독일, 영국에 존재하고 몇년 후 네델란드와 프랑스에 다시 도입되었지만 용어의 해석은 어느 辭·事典에도 수록되지 않았다. 다만 일반적인 것이든 한 주제에 관한 것이든 선택된 분야의 연대순 기록에 불과하다는 사실만은 전통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18C에 들어서면서 전통적으로 유명하고 훌륭한 百科事典이나 辭典이 새 시대를 열면서 등장했으나 아카데미 프랑세즈(Académie française) 辭典 初版이라든가 디드로(Diderot)나 알랑베르(Alembert)백과사전 그 어디에도 bibliographie는 수록되지 않았다. 다만 발전이라면 1751年版 디드로나 알랑베르에 “古寫本에 관한 지식에 정통한 사람”을 가르키는 bibliographe가 수록되었는데 이 정의는 1704년 트레부(Trévoux) 辭典에 실린 “樹皮, 종이, 羊皮紙에 쓰여진 古寫本에 대한 지식과 해독”이라는 정의를 본받은 것이다.

bibliographie가 처음으로 수록된 것은 1762년 「아카데미 프랑세즈」辭典 제4版으로 그것을 “bibliographe에 대해서는 “古寫本을 해독하고 印刷本이건 筆寫本이건 모든 도서에 관한 지식에 정통한 사람”을 일컫는 것이라고 정의내림으로서 종래의 저술목록의 개념에서 범위가 넓혀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다 학문적인 체계가 선 것은 1782년 기욤 프랑수아 드 뷔르(Guillaume François de Bure)의 教訓的 書誌(Bibliographie Instructive)<sup>5)</sup>第10卷 序文에 장 프랑수아 네 드 라 로셴(Jean François Née de Ia Rochelle)이 書誌學(science bibliographique)을 첫째, 活字印刷術, 둘째, 도서 그 자체에 관한 것으로 그 역사, 목록의 작성, 분류, 內在的 價値, 著者들에 관한 사항 등의 두가지 분파로 나누어 연구

5) 이 저술은 드 뷔르가 전 학문 전 언어를 망라하여 편찬한 주목할만한 최초의 選集으로서 書誌學史上 매우 중요한 것이다. 1763-68년 7권이 출간되었고 1769년에는 [L. G. Gaignat의 도서목록]으로 이어져 2권, 그리고 1782년 이상의 전 9권에 관계된 일람표가 네 드 라 로셴에 의해 출간되어 그 머릿말로 書誌學論이 전개된 것이다.

하게 된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수 많은 필사본과 도서가 국유화되고 이들을 분류, 목록하는 등의 정리과정에서 《bibliographie》라는 용어는 도서관의 학문이며 자연적인 확장에 따라 도서관의 학문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도서 및 도서관의 학문의 초기 이론가들은 그들의 저서에 《Bibliographie》라는 제목을 붙였다. 빠리의 인쇄인 겸 발행인인 블라르(S. Boulard)가 1804~1805년 「Bibliographie의 초보적 개론」(Traité élémentaire de bibliographie)을 마르세이유의 사서인 아샤르(C.F. Achard)가 1806~1807년 「Bibliographie의 초보적 강의록」(Cours élémentaire de bibliographie)을 각각 출판한 것이 그 예이다. 이 두가지 저술에서 도서는 활자인쇄술의 역사 및 초기 활자본으로 부터 목록작성의 규칙, 분류의 체계, 도서관에서의 도서 보관법, 그리고 사서의 의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에서 연구되었다.

1812년 문학가이고 사서이자 愛書家인 가브리엘 뻬노(Gabriel Peignot)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8C 중엽부터 도서관이나 도서관에 관한 모든 부분을 광범위하게 다루는 廣義의 學으로 정립된 bibliographie의 개념에 제동을 걸었다. 즉 그는 도서관의 학문을 bibliologie라 처음으로命名하고 bibliographie는 bibliologie의 한 분과로 일반서지와 특수서지의 두 분과로 구별시키자는 이론을 내놓았다. 매우 합리적이고 西歐에서의 현재 서지학의 전개방법에 큰 획을 긋게 되는 이 이론은 모든 분야에서의 새로운 이론의 출현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래동안 이론의 제시로 남아있었을 뿐 실제로 받아들여지지 못 했다. 1863년 리트레辭典, 1885년의 大百科事典(Grande Encyclopédie), 그리고 심지어 1960~1964년 사이의 라루쓰(Larousse)의 크고 작은 版들까지도 bibliographie를 광범위한 도서관의 학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1895년 빠리古典학교(Ecole des Chartes)<sup>6)</sup>는 빼노의 견해를 받아들여 최초로 書誌學 教授職을 맡은 샤를르 모르메(Charles Mortet)는 bibliographie를 “그안에 도서들이 서술, 분류되어 있고 끊임없이 이어져야 할 도서목록에 관한 연구”로 정의내림으로서 확인과 정보제공의 유용성을 가진 목록에 관해 취급하는 것이라는 그 본래의 기능으로 환원되게 되었다.<sup>7)</sup> 이는 “bibliographie는 목록을 취급하며 原典에 관한 정보를 얻는 방법을 갖춘 도서의 학문의 일부분”이라고 서술한 프랑스의 역사학자이자 서지학자인 샤를르 빅토르 랑글르와(Charless Victor Langlois)<sup>8)</sup>나 1926년 「bibliographie 편람」(Handbuch der bibliographie)에서 “bibliographie는 목록규칙”이라고 서술한 독일의 서지학자 게오르그 슈나이더(Georg Schneider)로 이어지면서 이후의 아카데미 프랑세즈 辭典 제8판(1932), 1934년 빠리에 있는 역사학 종합연구소(Centre de Synthèse historique)의 토의, 그리고 1950년 UNESCO의 定義에 영향을 주었다. 결국 이들의 의견을 참작하면 bibliographie는 도서의 학문의 한 부분이며 知的 연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도서의 목록을 구성하기 위해 인쇄된 혹은 여러가지 형태로 複製된 텍스트의 탐색, 記入, 설명 그리고 분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상 우선 書誌學을 대변하는 용어로서 bibliographie와 bibliologie의 성립과정을 개념의 변천과 함께 살펴보았다. 언급되어야 할 또다른 용어인 philologie는 각 용어의 定義와 함께 다루어야 이해가 쉬울것이므로 다음 章에서 詳述기로 한다.

6) 현재는 빠리국립고전학교(Ecole Nationale des chartes)로 명칭되는데 직역하면 빠리 고문서학교이나 도서관업무와 고문서보관소의 업무를 교육하는 곳이므로 고전학교가 더욱 적합한 단어이다. 1847년 소르본느건물내에 창설된 학교로 프랑스 최우수 학자와 사서를 배출하며 서류심사만으로 입학되는 대학과는 달리 대학의 교양학부 2년을 마친뒤 어려운 시험을 치루고야 입학이 가능하며 4년제코스이다.

7) Charles Mortet, “Leçon d’ouverture du Cours de bibliographie” *Revue internationale de l’enseignement*, 1898, pp.18-31

8) Ch. V. Langlois, *Manuel de bibliographie historique*, 1896

## 2. 定義와 研究範圍

앞의 용어의 성립과정에서 이미 bibliographie의 정의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자연스럽게 언급되었다. 요컨대 애초 목록(작성)의 뜻에서 범위가 넓어져 전반적인 도서의 학문이 되었다가 bibliologie의 출현과 함께 서서히 본래의 개념으로 환원될 때까지의 과정을 보인 셈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 장을 참고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현 시점에서 논의될 수 있는 bibliographie, bibliologie, philologie등의 정의를 살피기로 한다. 밝혀둘 것은 이에 대해서도 프랑스의 견해가 주종을 이룬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하나의 용어가 탄생하여 그것이 일반 사전에 실리기까지 또는 일반적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 그리고 학적 체계가 성립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bibliographie와 bibliologie를 최초로 命名한 프랑스에서 이들 개념의 정립을 이루고 있는 사이, 後述될 諸이론에서 볼 수 있듯, 英語圈의 학자들은 書誌學的 용어로서 거의 bibliography만을 다루고 있음을 볼 때<sup>9)</sup> 더욱 명료해질 것이다. 어느 분야든 매우 세분화되고 심도깊은 연구가 요구되는 現시대에 동서양의 書誌學界가 나갈 방향은 오랜 전통으로부터 성숙된 방법론을 택해야 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수세기에 들어서면서의 bibliographie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아카데미·프랑세즈辭典 제8판이자 마지막 版(1932) ; 어떤 주제하에 출판된 도서, 그 版次, 가치, 회구성등에 대한 지식.

빠리의 역사학 종합 연구소(Centre de Synthèse Historique)(1934) ; 상업적 또는 학문적인 이용을 위해 일정한 방법으로 도서를 탐색하고

9) 이에 대해 Malclès 도 *Manuel de Bibliographie* p.15에서 Anglo-saxon 국가에서는 bibliography를 특별히 圖書의 學問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대표적인 저술로 A. Esdaile, R. Stokes, E. E. Willoughby, E. W. Padwick, P. Gaskell, R. R. Mackerrow, A. M. Robinson, T. H. Howard의 bibliography가 사용된 書名을 나열하고 있다.



분류하는 것.<sup>10)</sup>

L.N.말끌레스(1985) ; 서지학(bibliologie) 혹은 도서학(science du livre)의 한 분과로서 知的 작업을 원활히 하는데 있어서의 가장 적절한 목록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인쇄된 자료를 탐색, 기입, 설명, 분류하는 것<sup>11)</sup>

이상과 같이 프랑스에서의 bibliographie는 단순히 目錄이나 書誌의 개념으로 환원되어 프랑스의 대표적인 辭典 또는 百科事典인 Larousse, Littré, Robert, Universitas등을 종합, 요약하면

첫째, 주어진 主題에 대해 출판된 도서들과 그 版本에 대한 지식.

둘째, 한 주제에 관련된 著述目錄

셋째, 近刊 저술의 정규적인 一覽目錄으로 대변되고 있다.

앞서도 지적했듯 英語圈에서의 bibliography는 포괄적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간단히 정의내리기보다 몇가지 관점에서 검토되기 때문에 뒤의 諸理論에서 각각의 논의를 다루고자 한다.

다음 bibliologie의 정의를 살피되, 이 역시 초기의 bibliographie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용어나 개념은 이미 오래 전에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辭典에 까지 오른 것은 상당히 최근의 일이라는 점을 밝히는 바이다.

문자 그대로 biblion(도서)+logie(學), 즉 “도서의 학문”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베노(1812), 리트레辭典(1863) ; 모든 종류의 書誌的 분야와 관련되어 거대한 분량의 저술들에 대해 이론적으로 규명된 설명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書誌的 總覽

20C 라루쓰辭典(1928) ; bibliographie의 이론적인 분야로 이 학문의 규정이나 용어를 취급하고 또한 前提的인 구실을 제공한다.

10) P. Frieden, “Bibliographie, étymologie et histoire du mot”, *Revue de Synthèse* (1934) pp.45-52, 116-119

11) L. N. Malcès, *Manuel du bibliographie*, p.15

라루쓰 大百科事典(1960) : 도서의 학문, 도서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 분야의 집합적인 것으로서, 예를 들면 bibliographie, bibliothéconomie,<sup>12)</sup> 도서의 역사, 愛書취미 등을 말한다.

브르통(Breton) 辭典(1977) : 量質面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경제적, 技術的 측면 및 정치, 사회, 문화적 관점상의 제반 現象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 것으로서 모든 印刷物의 생산, 배포, 이용등의 조건에 관한 체계적 연구.

아프노르(AFNOR) 辭典(1977) : 어떤 종류, 어떤 내용이건 간에 技術的,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知的인 관점에 입각하여 그 발행, 상업활동, 배포, 개선점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印刷物에 관한 과학과 技術<sup>13)</sup>

아프노르 사전(1979) : 도서의 출판과 배포의 技術에 관한 연구. 註 : 이 개념은 技術的,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知的인 관점에서 그 구조, 발행, 상업활동등의 도서의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를 포괄한다.

이상은 bibliologie를 定義하고 있는 각종 辭典이나 事典의 내용<sup>14)</sup>으로 개념을 보다 세분화, 구체화 시키기 위해 빼노가 “도서의 學”으로 命名은 했으나 당시의 그것은 다분히 書誌的 요소가 강한 것으로서, bibliographie의 이론적인 측면을 다룬다는 「20C 라루쓰辭典」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포괄적인 도서의 학문이라기 보다는 그보다 축소시킨 “目錄의 學”이라는 개념에 머물러 있었다.

bibliologie에 대해 정의의 개념상으로는 이론적 또는 실제적으로나 본격적으로 그 학문의 성격 규정을 위한 시도가 시작된 것은 1960년대 부터로서 그 이후 출현한 정의를 종합해보면 결국 포괄적인 圖書의 學

12) Library economy 쪽으로 해석되는 이 단어는 Library science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프랑스에서의 「도서관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사전에는 실리지 않는 곳이 많다.

13) 과학과 기술은 sciences et techniques, 學的인 면과 術的인 면, 즉 學術을 뜻한다.

14) 해당 辭典이나 事典의 해당 年度版을 참조할 것

問으로서, 그 생산에서부터 배포, 이용에 이르기까지 야기될 수 있는 모든 知的, 技術的 觀點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觀點에서의 현상까지도 체계적으로 취급하는 연구로 귀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前述의 정의에서 보았듯 bibliographie나 bibliologie가 뜻하는 도서의 개념은 인쇄물에 극한한 것으로서<sup>15)</sup> 자연히 philologie의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 수 없다.

印刷의 발명연대를 木板本의 출현때부터 잡고 있는 동양과는 달리 木板本의 시대를 거치지 않은 서양에서는 구텐베르크(Johannes Gutenberg)의 活字 發明을 분기점으로 철저히 寫本의 시대와 印刷本의 시대를 구분짓고 있다. 물론 서양에서도 兩面을 聖書로 刻한 1370~'80년경 추정 「Protat」라 불리는 木板이 現存 最古의 것으로 밝혀진 이래<sup>16)</sup> 14C末부터 15C의 놀리카드나 카렌더등의 인쇄에는 자주 사용되었으며 15C初에는 유명한 「貧者의 聖書」(Biblia pauperum)를 비롯한 木板本이 현재 33種 100餘本 전해지고 있으나<sup>17)</sup> 그것이 동양처럼 뚜렷한 한 종류의 도서로서 자리잡기에는 미약한 존재였다.

또한 木板이나 活字의 印刷本이 출현한 이후에도 筆寫本이 그 이전이나 마찬가지로 존재했던 동양과는 달리 서양에서는 활자의 발명과 더불어 筆寫의 시대는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반드시 附言할 것은 일찌기 105년의 발명 이래 書寫材料의 주종을 이루었던 동양의 종이 서양에서는 12C 중엽에 최초로 스페인과 프랑스에, 그리고 전 유럽에는 16C에 이르러서야 완전히 보급되어 서로이 열리는 印刷本 시대의 書寫材料

15) 같은 계열의 개념이더라도 용어의 세분화에 앞장을 서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非圖書資料의 書誌에 각각의 명칭이 있으며(後述을 창조할 것) 정보화사회에 출현한 電子圖書에 Electre-biblio라는 용어를 새로이 주어 곧 Electre bibliologie의 대두도 목전에 두고 있다.

16) •M. Audin, *Histoire de l'imprimerie*(paris:A. et J. Picard, 1972) p.48, 58

•Albert Labarre, *Histoire du livre* (Que sais-je n°620, Paris : PUF, 1979) p.50

17) •S. Dahl, *Histoire du livre*, (Paris : Edition Poinat, 1967) pp.90-91

•A. Labarre, op.cit., p.51

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점도 寫本과 印刷本의 兩者의 개념을 뚜렷이 하는데 큰 역할을 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출현의 시기가 다를 뿐 筆寫本이나 木板本, 그리고 活字本이 서양식 인쇄방법이 도입될 때까지 거의 같은 비중으로 존재한 동양에서의 書誌學의 개념은, 따라서, 文獻學으로 번역된 回顧的 성향의 philologie와도 상당히 符合되는 것으로 그 定義는 다음과 같다.<sup>18)</sup>

14C, 文學과 博學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는 뜻으로 희랍語로 부터 유래된 라틴語, philologia에서 형성된 단어로써, 첫째, 1690년에 형성된 原本(文)에 대한 연구라는 의미

둘째, 1818년에 형성된 原本(文)의 批評的 分析에 따른 언어의 연구로 言語學의 기본을 이루는 의미

그리고 셋째, 전문적 용어로서 現傳하는 각종 寫本 가운데 原本(文)에 대한 연구, 古代 및 中世 文獻의 연구, 각종 寫本 및 그 傳本과 異本에 관한 연구등을 뜻하며 金石學(épigraohie), 古文書學(paléographie), 과피루스文書學(papyrologie)등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즉 philologie는 bibliologie보다 범위를 소급하여 考古學(achéologie), 金石學, 古文書學, 과피루스文書學이나 言語學까지도 포함하는 전반적인 文獻研究의 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그 回顧性으로 인해 寫本의 형태를 주된 대상으로 삼기는 하나 실제적인 연구에 있어서는 인간의 思想이 文字의 형태로 담긴 것이면 그 취급범위가 되고 있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주목할 단어로서는 書誌學에 있어서 小 장르를 구성하고 있는 bibliophilie를 들 수 있다. 愛書취미로 번역될만한 이 용어는, 그러나 단순히 책을 사랑하는 차원이 아니라 전문적 식견을 갖고 책을 사랑하고 수집하는 까닭에 특히 형태적으로 귀중한 가치가 있는 도서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뜻하는 것으로 14~15C 유럽의 귀족들과

18) 역시 Larousse, Littré, Robert, Universitas의 최신판을 종합, 요약한 것임.

새로운 부르조아층에 의해 생겨난 전문성을 띤 분야이다<sup>19)</sup>이 용어의 기본이 되는 愛書家, bibliophile은 1740년 형성된 biblion과 phile(=벗, 친구)의 복합어로서 稀觀本이나 貴重本에 대한 열정을 갖고 이를 연구하고 소장하는 사람을 뜻하며 바로 이 “bibliophile의 學問과 技術”을 뜻하는 것이 1858년부터 형성된 bibliophilie라는 용어인 것이다.<sup>20)</sup>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는 일반에게 書誌學의 전부로 까지 간주되는 경향이 있는데 아직까지 書誌學에 대한 이론적 방법론의 연구가 日淺했던 관계로 보여진다.

이상 書誌學을 나타내는 용어의 정의를 알아보았다. 결국 포괄적인 도서의 학문으로 書誌學은 수세기 서양으로부터의 譯語로 받아들여졌고<sup>21)</sup>

아울러 이론적 방법론도 도입되었거나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하겠는데 동양에서도 그 용어나 나름대로의 연구방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藝文志, 經籍志등을 비롯한 각종 史書 內에서의 도서목록이라든가 校讎·校勘學, 目錄學, 板本學 등은 그 용어의 역사가 길건 짧건간에 書誌學의 각각의 分派를 대변해 주는 좋은 본보기의 용어들이다. 다만 그들은 처음부터 영역이 뚜렷한 것들이어서 書誌學이나 圖書學, 文獻學 처럼 한마디로 도서의 학문이라는 포괄적 의미가 결여되어 큰 학문으로 성립되지 못했고 각각의 영역을 위한 定義나 學的體系의 정립도 거의 없었던 관계로 이날까지 발전된 수준을 보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書誌學의 研究範圍는 어떠한 것들일까. 後述될 연구방법에서 자연스럽게 언급되었으나 간략하게 정리될 만한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 S. Dahl. op.cit., pp.70-75

20) 註 18과 동일

21) 書誌學이란 용어의 성립에 대한 구체적 연대를 언급하는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으나 이와 동의어로 쓰이던 書史學이 明治후기부터 학계에서 慣用되다가 大正末年이래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함은 이때부터 더욱 본격적으로 서지학만을 사용하였다는 얘기이며 따라서 금세기를 전후하여 성립되었을 것으로 추측하는 것이다. 長澤規矩也, 「書誌學 序說」 p.1 참조

우선 長澤規矩也의 견해를 보면<sup>22)</sup>

1. 圖書의 定義, 範圍, 起原, 發達
2. 圖書의 材料, 形態(大小, 樣式), 裝訂, 附屬品
3. 書寫, 印刷의 材料, 樣式, 方法, 種類, 歷史
4. 內容(text)의 成立(著述, 編修, 翻譯, 圖表), 種類, 傳來, 校訂, 存亡.
5. 圖書의 收集, 保存, 分散等에 關한 事情, 方法, 歷史.
6. 文庫·圖書館의 類別, 歷史.
7. 圖書整理의 原理, 方法, 歷史(目錄法, 分類法)
8. 圖書를 대상으로 하는 各種의 企業(編修, 印刷, 製本, 出版, 賣買, 貸借)등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나열하고 있으며 특히 이 중 2, 3項만을 書誌學의 研究대상으로 생각하는 傾向이 있는데 이는 작은 의미의 書誌學인 形態書誌學일 뿐 모든 것이 포함되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 小見山壽海는<sup>23)</sup>

第一段階 즉 最大 廣範圍에서는 圖書에 關한 일체의 事象, 곧 書冊에 對해서의 여러가지 研究, 記述 일체를 포함

제2단계 즉 最광범위에서는 일체의 쓴 것 및 印刷物 그리고 이것에 직접 關係 있는 것(으로서 그 歷史的인 것), 圖書 愛好家가 興미를 가질 수 있는 거의 모든 사항, 예를 들면 인쇄의 역사, 도시의 裝訂, 插畫, 蒐集에 關한 일

제3단계에서는 寫本을 제외한 刊本에 한함

제4단계는 著者, 인쇄, 版式 발행횟수 및 分類의 일 포함

제5단계는 狹범위로 분류에 關한 사항을 포함치 않는다.

제6단계는 最狹범위를 書目を 말하고

제7단계는 最小狹범위를 關係 또는 參考文獻을 뜻한다고 하면서 이를 크게 大, 中, 小 書誌學으로 나눈다면 大서지학에는 1단계를 中서지학

22) 長澤規矩也, 「書誌學 序說」(東京: 吉川弘文館, 1960), p.2

23) 河東鎬 譯編, op.cit., p.21-24

에는 6단계를 소서지학에는 7단계를 다루면 좋겠다는 의견을 펴고 있다. 大·中·小 書誌學으로 나누는 견해를 상당히 합리적이거나 해당항목은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모든 書誌學 관계의 논문을 수록하고 있는 Essays on bibliography에 실린 논문 내용으로 그 연구범위를 살펴 보자. 특히 이 도서는<sup>24)</sup> 一個人的 견해가 아니고 書誌學 내의 각 분야마다 다양한 學者들의 논문 49편을 신고 있기 때문에 理論的 접근방법이나 연구범위를 조사하기에는 매우 적합한 參考書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을 보면 國家, 著者, 主題書誌와 分析, 原文, 歷史書誌學, bibliography의 역사와 이론, 書誌的 構成과 統整, 書誌의 探索, 書誌學者, 書誌와 圖書館, 그리고 書誌센터(bibliographic center)등으로 역시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이들 연구범위는 앞에서 살핀 여러 定義와 뒤에서 살필 諸 理論과 연결되면서 논의되어지는 것이지만 크게 大·中·小로 범위를 나누어-너무 세분화시키는 것도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므로-각 분야를 적용시켜 보는 것이 논리적일 듯 싶다. 즉 가장 큰 범위로서는 도서와 관련된 일체의 事象을 최소 범위로서는 환원된 bibliographie의 개념, 다시 말해 가장 적절한 目錄이나 書誌를 만들기 위해 資料를 탐색, 기입, 설명, 분류하는 것을, 그리고 나머지 일체를 중간 범위로서 집어넣는 방법이다. 따라서 中書誌學은 대체로 歷史를 비롯한 도서의 物理的인 일체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고 小書誌學은 目錄과 書誌 연구에 필요한 著者, 印刷, 版式, 발행횟수 등에서 부터 分類, 그리고 參考言目에 이르기까지가 해당될 수 있다. 여기서는 어떠한 學的體系나 理論을 따지기 보다, 또는 명칭이 가져오는 의미나 紐帶를 밝히기 보다 書誌學이 다를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쉽게 大別해 본 것이

24) *Essays on bibliography*, compiled and edited by Vito J. Brenni, Metuchen, N. J. : The Scarecrow Press, 1975, p.552

다. 자세한 것은 앞 부분과 後述을 참조하면서 연결해 보면 이상적인 답변이 나오게 될 것이다.

### Ⅲ. 研究方法의 諸理論

#### 1. 東 洋

앞서도 지적했듯 書誌學의 研究方法은 그다지 체계적으로 발전되어 있지 않다. 그 용어부터가 일본에서 譯語로서 命名되어 中國과<sup>25)</sup> 우리나라에 받아들여진 것이기 때문에 方法論에 관한 한 동양 3國의 것을 합쳐봐야 數種에 불과하다. 그나마 본격적인 방법론의 전개라기 보다는 연구의 범위를 통해서 또는 저자가 속한 국가의 도서의 역사라든가 物理的인 검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방법을 제시한 것이 대부분이라 하겠는데 그 중 가장 개척자적인 직분으로 대표될만한 연구를 한 사람이 「書誌學」을 낸 小見山壽海<sup>26)</sup>라 할 수 있다. 그는 서양의 방법론에 따라 書誌學을 이에 관한 諸名辭, 定義, 범위, 역사등에서부터 學的 체계, 그리고 나름대로의 자신의 결론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광범위하고 해박한 지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여기서 學的 연구의 방법을 綜觀의 書誌學과 分觀의 書誌學으로 大別하여 前者를 일반적인 圖書의 學으로, 後者를 目錄의 學으로 구분했다. 즉 전자는 도서자체, 다시 말해 하나 하나의 특정한 도서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전체로서의 도서에 대하여 논하는 것이며 후자는 개개의 도서에 대해 記載함을 그 직능으로 삼는 것이라 밝히고 있다. 目錄의 意義, 個別目錄, 集成目錄, 書誌의 書誌등을 다루고 있는 분석적 서지학은 이미 前章에서 살핀 순수한 의미의

25) 長澤規矩也, op.cit., p.7

26) 小見山壽海, 「書誌學」, 東京, 1931. 이는 河東鎬, op.cit., pp.1-205까지 수록되어 있다.



bibliography, 즉 書誌나 目錄을 뜻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의 설명을 부연할 필요가 없으나 종합적인 서지학을 의미하는 綜觀的 書誌學에서는 著者 나름대로의 이론을 전개하고 있어 약간의 설명을 필요로 한다. 도서의 용어, 정의, 成立, 傳來의 네 부분으로 구분된 綜觀的 書誌學은 도서의 성립과 도서의 전래에서 연구방법을 논하고 있다. 그는 도서의 전래는 성립의 연장, 발전이며 도서의 성립은 전래의 기본이자 원류로서 도서의 생산 측면을 성립에, 완성된 도서의 動向, 즉 그 내력, 분배 및 소비 측면에서 본 도서의 연구를 전래편에 넣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서의 성립에는 人件的 要素, 文件的 要素, 物件的 要素가 있는데 人件的 요소란 도서 생산의 관계자를 말하는 것으로 직접 관계자로서는 著作者, 編者, 譯者 및 寫本의 경우 筆寫家, 刊本의 경우 出版者, 發行者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간접적 관계자는 讀者, 閱覽者, 購買者, 販買者 등을 말한다. 文件的 요소란 文字·文字代用物을 가지고 행하는 記錄의 방법 등에 관한 것이다. 예로부터 문자기록의 방법에는 記銘 刻印한 것, 쓴 것 또 版으로 박은 것 등이 있으며 金石學 古文書學 등이 이에 속한다.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는 書寫한 도서인 寫本을 들 수 있는데 刊本은 결국 書寫의 기계화로 일종의 傳來형이라 해서 그 항목으로 미루었다. 物件的 요소란 종이, 잉크나 붓 또는 펜등의 서사도구, 活字鑄造機, 각종 인쇄기, 裝訂 및 그에 필요한 각종 물품 등 물리적이고 형태적인 것을 검토하는 것이다.

도서의 傳來는 動的 전래와 靜的 전래로 나누어 前者에는 하나의 도서가 轉傳 複製되는 과정으로 校讐·校勘, 도서의 간행, 版式, 발행회수 등 출판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을, 後者에는 보존위주 또는 열람위주의 集書, 藏書 또는 積書, 독서법, 연구법, 方法學 및 藏書印, 藏書表 등 일체의 정적인 면을 말하고 있다.

이상의 小見山壽海의 「書誌學」의 내용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다소의 오류나 산만성, 용어의 前近代性이 지적되기는 하나 書誌學이 다

를 수 있는 모든 면을 상세히 나열하고 있어 서양의 방법론이 도입된 초기 著作으로서는 물론 현 시점에서든 상당한 秀作으로 평가받을만 하다.

서양의 연구방법을 정리한 우리나라의 것으로는 千惠鳳 教授의 “書誌學的 體系”를 들 수 있다.<sup>27)</sup> 여기서는 서양과 동양의 각종 서지학의 체계를 나열하고 다음과 같이 결론짓고 있다. 즉 書誌學을 體系書誌學(systematic bibliography)과 分析書誌學(analytic bibliography)으로 二分하고 분석서지학을 다시 形態書誌學(material bibliography)과 原文書誌學(textual bibliography)으로 구분하면서 체계서지학은 在來의 目錄學이, 形態書誌學은 板本學이, 原文書誌學은 校勘(讐)學이 각각 해당된다 하였다. 英語에서 도입된 위의 용어들은 後述될 것이므로 설명은 생략키로 한다.

이상의 두 연구는 서양의 연구방법을 도입한 것이므로 동양에서의 연구방법이라 할 수는 없는 것들이다. 동양 傳來의 것으로는, 오늘날의 書誌學처럼 총체적인 접목이 안 되고 일관된 연구가 행해지지 못해 단편적, 또는 분과적이기는 하나 校讐(勘)學, 目錄學, 그리고 板(版)本學의 성립을 말할 수 있다.<sup>28)</sup>

동양에서의 書誌學的 연구는 역시 中國에서 시작되는데 그것은 原文(텍스트)의 校訂에서 비롯되었다. 前漢末 成帝의 河平3年(BC26), 宮中藏書의 校訂의 勅命을 받고 劉向이 널리 천하의 異本을 求하고 諸本을 對校하여 古典 本文의 정확을 기하게 된 데서 校讐·校勘學이 탄생케 된 것이다. 그는 또한 1部の 도서가 끝날 때마다 目錄 및 解題를 만들었는데 이 解題를 劉向의 敍錄이라 하며 向의 子 歆은 父의 遺志를 받들어 敍錄을 모아 七略이라는 書目을 만드니 이가 곧 目錄學의 시초인 것이다. 兩者는 이렇듯 비슷한 시기에 생긴 것인데, 諸本을 수집하고 文

27) 千惠鳳, “書誌學的 體系”, 『國會圖書館報』 Vol. 5, No.1, 1968. 1, pp.5-15

28) • Ibid. pp.13-14

• 長澤規矩也, op.cit., pp.7-14

字의 異同을 조사하고 原本에의 精確한 復원을 시도하는 校勘學에 대해 校讐學을 경우에 따라 廣義로 해석하여 學問의 淵源, 學派의 流別까지 연구해야 하는 것으로 단순한 書目的 나열만이 아닌 古書의 源流眞僞나 傳來集散 까지도 조사해야 하는 目錄學과 동일시하는 것은 이 두 분야가 바로 비슷한 시기에 서로 이어져 이루어진 이유때문이 아닐까. 어찌 되었건 校讐·校勘, 目錄의 일이 前漢末에 이루어짐으로서 동양에서의 書誌學이 성립되기는 하였으나 막상 學이라는 용어가 붙게된 것은 淸朝에 이르러서였다.

淸朝 乾隆무렵 유명한 史學者 王鳴盛은 十七史商權 초입 부분에

目錄之學 學中第一緊要事 必從此問途

方能得其門而入 然此事 非苦學精究

質之良師 未易明也

라 쓰고 있다. 目錄學이라고 쓰인 것은 아니지만 目錄學의 3字가 포함되어 이것이 가장 오랜 것으로 보여진다.<sup>29)</sup> 그는 그러나 目錄의 學이 學中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외에 자세한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아 역사學의 근거로는 불충분한 것이라 하겠다.

반면, 北京語로서의 版本學은 今世紀에 이르러 형성된 것으로 그 내용상 이 분야의 개척서는 葉德輝의 書林淸話(1911)이나 同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었고 精確히 板本學의 3字<sup>30)</sup>가 나오게 된 것은 屈萬里·曠皮得 共著의 「圖書板本學要略」(臺北, 中國文化出版事業委員會, 1956)이다. 板本學에서 다루는 것은 한마디로 圖書의 物理的인 形態의 分析的 연구이다. 즉 刊·寫本의 형태적 변천과정, 裝訂, 版種, 版式, 字體, 紙質, 雕板, 活字등 知的 매개체로서의 도서가 아닌 物理·物質·形態의 인 측면을 연구하는 것이다. 가장 近者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西歐의 方法論이 다소 가미되어 늦게 생겨 났음에도 學的 연구는 3분야중 가장

29) 倉石武四郎, 「目錄學」(東京: 汲古書院, 1979) p.1

30) 數種의 이 분야를 다른 題名에서 볼 때 版本과 板本은 혼용되다가 '50년대 중반부터 板本學으로 고정된 듯 함.

활발한 편이다.

3분야의 개념은 거의 정확하게 校讐·校勘學이 原文書誌學, 目錄學이 體系書誌學, 板本學이 分析書誌學<sup>31)</sup>과 일치하여 비록 學的方法論의不在로 현재 동양의 學的 수준이 서양에 크게 못 미치지만 인류의 각 문화권은 설사 교류가 없아도 비슷한 경로를 스스로 거친다는 사실을 입증한 셈이다.

## 2. 英語(Anglo-american)圈<sup>32)</sup>

英語圈과 라틴圈에서의 書誌學의 용어는 다소간의 相異點을 보인다. 라틴권에서의 bibliographie, bibliologie, philologie의 개념이 각각 뚜렷이 형성된 것과는 달리 bibliology나 philology의 용어 및 그 유사한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니나 bibliography 자체를 서지학의 개념으로 고수하려는 경향은 강하게 남아 있다. 더욱이 근대국가로 탄생한 美國이 전통적인 도서의 발전경로를 갖지 못한 것을 대변하듯 bibliography를 도서의 역사나 물리적 측면에서의 연구보다는 書誌情報의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통계 및 數量學的 연구, 컴퓨터를 적용한 서지정보의 구성 및 검색 등 실용적 學으로 발전시키면서 애초의 書誌의 개념이 그만큼 서지학 전체에 큰 비중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구라파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영어권의 서지학의 개념 역시 學界의 연구활동에 기본적인 도구로서 유용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의 나열과 맥을 같이 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요하네스 트리테임(Johannes Trithem, 1462-1516)의 Liber de scriptriptoribus ecclisia-

31) 板本學은 흔히 우리나라에서 形態書誌學으로 불리우는데 自生的 용어일 경우 설득력이 있으나 material bibliography의 譯語로는 적합치 못한 것이 오히려 영어권에서 현재 material bibliography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32) Malcès는 Anglo-saxon圈으로 표현했으나 Anglo-american圈이 더욱 적절한 표현이다.

sticis<sup>33)</sup>로 부터 이어지는 일련의 書誌 작업 가운데 토마스 F. 딥딘(Thomas Frognall Dibdin, 1776-1847)은 愛書家의 시각으로 도서를 다룸으로서 범위를 확대시켰다. 그러나 역시 學的 체계로서는 미흡한 것이었다.<sup>34)</sup>

學으로서의 성립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오랜동안 캠브리지 대학도서관에 司書로 재직했던 헨리·브래드쇼(Henry Bradshaw, 1831-1886)와 보들레이안 도서관에서 인큐내블러 목록작성에 종사한 로버트 프록터(Robert Proctor, 1868-1903)가 단지 도서목록을 편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도서가 나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검토한 데서 부터였다. 이같은 조사작업은 著作의 원고에서 부터 완전한 인쇄본이 될 때까지 原文의 전달과 관련된 어떤 文學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서광을 비치는 것이었으며 이 시도는 그 뒤를 잇는 영국의 유명한 3인의 書誌學者에 의해 學的 성립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큰 공헌을 한 것이었다.<sup>35)</sup>

수세기를 전후하여 활동한 이른바 新書誌學("new bibliography")의 트리오인 A. W. 폴라드 (Alfred William Pollard, 1859-1944), R. B. 머케로우(Ronald Brunlees Mckerrow, 1872-1940), W. W. 그레그(Sir Walter Wilson Greg, 1875-1959)는 구체적인 學的 연구방법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으나 도서를 物理的인 대상으로 연구하기 시작함으로써 현대 書誌學의 기반을 다져놓았다.

그레그에 의해 가장 선구자로 인정받은 폴라드는 「세익스피어의 Folios와 Quartos」<sup>36)</sup>라는 전문연구를 통해 동일한 희곡작품들을 담고 있는

33) 인쇄된 書誌로서 최초의 것으로 펠클레멘트 이래 자신에 이르기까지 약 천여명의 성직자, 신학자, 법학자, 인문주의자들의 7,000여 저술을 연대순으로 소개한 것이다.

34) *Thomas Frognall Dibdin: Selections, compiled and introduced by Victor E. Neuburg*(Metuchen, N. J & London, 1978)

35) Robert B. Harmon, *Elements of bibliography* (Metuchen, N. J., & London, The Scarecrow Press, 1981), p.14

36) Folio와 Quarto는 각각 2切版과 4切版을 뜻하는 것으로 당시의 판짜기는 모두 2절판, 4절판, 8절판, 16절판 등으로 행해져 말하자면 「세익스피어의 選集」을 이런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異版을 종이, 활자, 폐지선정, 인쇄된 장식등을 통해 비교했으며 영문학을 전공한 머케로우와 그레그는 엘리자베스 여왕및 자코뱅時代의 著述들을 편찬하면서 인쇄방법에 따른 명확한 원칙을 세우려고 노력했다. 이들은 서지학을 “有形의 대상으로서의 도서의 연구”로 정의내렸으며 原文의 형태적 전래의 전과정을 포함한 原文의 비평을 書誌學的 연구방법으로 보았다. 현대적 용어인 열거, 또는 체계서지학이라든지 비평 또는 분석서지학 대신 原文批評(textual criticism)이라는 표현으로 두가지 관점, 즉 內的이며 문학적인 것으로, 예측되는 저자의 의도를 표현함에 있어 異文의 다양함과 그 적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과 外的 혹은 書誌學的인 것으로 그 목적을 文書的 전래를 추적하고 오직 그들의 유래된 원류와 관련해서 異本들을 취급하는 데에 둔다는 것이 그들 연구의 내용이었다.<sup>37)</sup> 말하자면 이들로 부터 현시점의 原文書誌學 및 批評書誌學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들로 부터 출발한 서지학의 학적체계는 20C 중반에 들어서면서 많은 학자들에 의해 구체적인 연구방법으로 제시되었다. 用語상 그리고 내용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크게는 전통적 개념의 書誌와 도서의 物理的 형태의 연구로 大別된다는 점은 이들 모두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여기서는 대표될만한 몇가지만 살펴보기로 한다.

(1) 프랑크 C. 프랜시스(Sir Frank C. Francis)<sup>38)</sup>

그에 의하면 書誌學은 일반적으로 (i) 몇가지 체계에 따라 정리된

37) • Alfred William Pollard : A Selection of His Essays, Comp. by Fred W. Roper (Metuchen, N. J.: The Scarecrow Press, 1976. 244p.)

• Ronald Brunlees Mckerrow : A selection of His Essays, comp. by John Phillip Immroth (Metuchen, N. J.: The Scarecrow Press, 1974, 240p)

• E. W. Padwick, *Bibliographical Method*, (Cambridge & London, James Clarke & Co. Ltd. 1969) pp.1-12.

• Sir Frank C. Francis, "Bibliography" in *Essays on Bibliography*, pp.10-19

38) F. C. Francis, *ibid.* (1953)

도서의 목록(體系書誌學 또는 記述書誌學으로 불리운다) (ii) 형태적 대상으로서의 도서의 연구, 즉 도서가 만들어지는 재료와 그들을 짜맞추는 방법(일반적으로 批評書誌學으로 불리운다)으로 이해된다. 체계서지학과 비평서지학 모두 학문하는 학생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前者는 연구를 위한 자료정보의 제공, 後者는 原本으로서의 저자의 작품과 그 가치속에서 도서의 위치를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는 크게 記述書誌學(descriptive bibliography)과 批評書誌學(critical bibliography)으로 나누어 前者에는 갈렌의 De propriis libris liber로 부터 시작되는 각종 목록 또는 書誌를 世界目錄, 國家書誌, 出版物書誌, 主題書誌, 個人書誌로 나누어 나열하고 마지막으로 書誌 편집의 방법을 적고 있다. 後者에는 그레그, 플라드, 머케로우를 비롯하여 도서의 物理的 측면을 다룬 書誌學者들을 그들의 간단한 업적과 더불어 나열함으로서 그 특성을 규정짓고 “書誌學者는 도서의 제작 또는 그 이어지는 역사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에 대한 지식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다. 종이, 활자, 摺紙, 삽화, 장식, 인쇄, 綴訂, 裝訂 등의 모든 것은 저자의 작품 속에서 도서의 위치를 결정짓는데 공헌하는 것들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2) 버너 W. 클랩(Venner W. Clapp)<sup>39)</sup>

크게는 체계서지학(systematic bibliography)과 分析서지학(analytic bibliography)으로 나누어 설명했으나 발전된 형태의 그 나름대로의 논리를 펴고 있어 크게 주목된다. 요약하면:

書誌學(bibliography)은 學(science)으로서, 術(art)로서, 또는 출판물을 기록하는 技術(art)의 전형적 產物로서 적용되는 명칭이다. 學으로서의 서지학은 단순한 물리적 대상으로서든지 혹은 사상의 매개물로서든지 모든 측면에서의 도서를 취급하는 지식의 구성된 부분이다. 術으로서의 서지학은 도서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구성하고 제시하는 技術

39) V. W. Clapp, "Bibliography", *ibid.*, pp2-9 (1969)

이며, 技術의 전형적 산물로서의 그것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 보편적 특성을 나누고 있는 도서의 체계적인 目錄化 작업을 말한다. 여기서 사용되는 도서라는 용어는 좁은 의미에서의 도서가 아니라 팜플렛, 정기간행물, 신문, 신문기사, 필사본, 지도, 악보, 그리고 마이크로팩시밀리까지도 포함한 도서와 흡사한 대상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다. 서지학의 영역은 모든 기록정보에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영화라든지 음반까지도 실제로 그 범위에 받아들여지고 있다.

廣義의 서지학은 도서의 물리적, 知的 영역에 관련된 모든 것을 연구하는 것으로 이 연구범위에는 도서의 역사, 개인 저작물의 현황, 他저작물과의 관련성 등에 대한 이해가 포함된다. 이래서 羊皮紙와 종이, 裝訂, 木板印刷術과 活字印刷術, 도서삼화에 관한 연구, 도서의 각 부분들의 卷으로의 집합, 그리고 저자, 출판, 배포의 실태 등이 모두 서지학 專有의 것들이다.

서지학의 목적은 많은 방법에 따라 얻어지겠으나 크게 저자, 출판, 原文유래의 실태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 세분화된 연구를 하는 분석서지학과 그와는 반대로 도서의 체계적인 목록을 만들기 위해 보다 일반적인 연구를 하는 체계서지학으로 나눌 수 있다.

서지학에 적용되는 批評이라는 단어는 두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學으로서의 비평서지학은 원문비평에 관련된 분석서지학과 동일하며 비평서지로 불리우는 목록은 목록화된 도서들을 비평적으로 평가한 것을 말한다.

記述書誌學(descriptive bibliography)이란 용어는 체계서지학에서 사용되는 총체적 방법보다 분석서지학에서 필요한 記述의 자세한 방법을 의미하는데 사용된다.

구체적인 분류로서는:

體系書誌學 : 이것은 學보다는 技術로서의 서지학을 의미한다. 그 목적은 도서의 체계적 배열에 있어서 특수한 목적이나 공통의 특성을 적



합하게 확인하고 記述하는 것이다. 그 전형적 産物은 유사하게 bibliography로 불리우며 여기에는 많은 유형이 있는데 그들의 특성은 서로 관련지어지며 現行 書誌 혹은 遡及書誌로 볼 수 있다. 많은 다양성과는 달리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列舉서지(Enumerative Bibliographies) : 첫번째 목적이 목록을 제공하는 것으로, 첫번째 목적이 그 내용인 주제별 서지와는 대조되는 것이다. 국가에서 생산된 도서를 수록한 國家書誌(National Bibliographies)와 특정한 집단에 의해 도서의 확인과 위치지시를 목적으로 하는 目錄(Catalogs)이 이에 해당된다.

그밖의 열거서지 : 여기에는 특별한 解題, 稀貴本目錄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동일 주제와 내용을 편집한 主題書誌(Subject Bibliographies), 索引(Indexes), 抄錄誌(Abstract Services), 主題別 가이드(Guides to the Literature of a Subject), 특정한 연구를 위한 자료의 모음인 藏書 가이드(Guides to Collections), 著者の 출판물 목록과 함께 그의 생의 중요 사건을 기록한 傳記書誌(Bio-bibliographies), 참고도서의 목록인 參考目錄과 必讀目錄(Source Lists and Reading Lists), 書誌의 書誌(Bibliographies of Bibliographies)등이 속하고 있다.

分析書誌學 : 이것은 학문적 측면의 서지학을 뜻한다. 도서의 물리적 특성에 기반하거나 그것으로부터 유래된 정보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그 역사, 특히 그들의 覆製한 原文의 역사와 관련하여 명백성을 제공할 것이다. 분석서지학은 체계서지학에 비해 훨씬 더 명백하게 도서 내에서의 변화를 認知해야 하기 때문에 그 記述의 방법은 훨씬 정확하고 명백해야 할 것이다.

(3) E. W. 패드윅(E. W. Padwick)<sup>40)</sup>

다소 단편적이고 산만한 이전의 연구들에 비해 전편을 통해 서지학의

40) E. W. Padwick, op.cit.

각 분야를 상세히 다룬 패드워의 「書誌學의 方法」은 현 시점에서 볼 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지만 본격적으로 書誌學의 研究方法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크게 평가받는 저술이다.

15C 印刷本의 출현 이래 20C에 이르기까지 각 세기별로 서지학적 연구와 도서의 물리적 형태에 관한 모든 부분을 체계적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서지학의 시대별 연구동향이라든지, 그 연구의 대상이 자연스럽게 표출되면서 서지학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결국 서지학의 기본적 관점은 “記述”(descriptive) 혹은 “歷史”(historical) 書誌學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列舉 혹은 體系書誌學(enumerative or systematic bibliography) 및 分析 혹은 批評書誌學(analytical or critical bibliography)의 兩者로 압축된다.

“列舉”와 “체계”라는 용어는 두가지 다 서지학자들에 의해 사용된 技術과 그의 연구가 출판되어 발표된 결과와 관련된다. 애초의 書名의 기록과 열거로 시작된 書誌的 형태는 아직도 모든 서지학 연구의 출발점으로 남아있는데 도서의 존재 여부가 불투명하면 분석이고 記述이고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열거 또는 체계 서지학의 주된 목적은 상세한 서술보다는 기록하고 目錄化하는 것이다. 記述의 분량은 작업의 범위에 따라 다양하지만 보편적으로 著者名, 書名, 版次, 出版社, 出版年, 페이지 수, 삽화등의 對照事項을 기입하면 적절하다.

분석 혹은 비평 서지학은 前者에 비해 또다른 종류의 技術과 관련되며 요구되는 記述이 보다 많기 때문에 흔히 “記述” 書誌學으로 더 불리운다. 이들 용어들은 세가지 사항을 발견하기 위해 도서를 조사하는 技術을 의미하는 것인데:

1. 도서 그 자체, 그 저자와 인쇄자 혹은 출판자 名, 출판 날자와 장소
2. 연구중인 도서자료의 版(copy)이 동일 저술의 다른 版들과 어떤 관계에 있으며 그것은 어떤 특정한 총체적인 版(edition)중 어디에 할

당되느냐의 문제

3. 그 版(copy)의 완전도: 모든 페이지가 남아있고 완전하며 올바른 순서에 따른 것이냐의 여부등이 그것이다.

도서가 著述作品으로서가 아닌 제작된 품목으로 다루어지는 분석서지학은 이렇게 해서 동일 저술의 한 특정版이 다른 版들과 구별되는 특성을 분리시키고 기록하는 것이며 그 증거로서는 종이, 활자, 머릿글자, 장식, 삽화등등 도서가 제작되는 재료와 이 재료들이 마지막 産物로서 구성되는 방법, 이를테면 종이는 어떻게 摺紙되고 함께 綴되었으며 활자는 어떻게 組版되고 인쇄되었는가 등에 관한 내용을 記述하는 것이다.

(4) A. J. K. 에스테일(Arundell James Kennedy Esdaile, 1880-1956)<sup>41)</sup>

서지학을 다룬 저술 중에서 지금까지 가장 폭 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에스테일의 「書誌學 入門」(Manual of Bibliography)을 역시 유명한 서지학자인 로이 스토크(Roy Stokes, 1915- )가 재구성한 것으로 특성있는 전개를 하고 있다.

크게 체계서지학(Systematic bibliography)과 분석 또는 비평서지학(Analytical or critical bibliography)으로 나누는 시각은 같되 역사서지학(Historical bibliography)을 이들에 관련시키면서도 각각 동등한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原文書誌學에 해당하는 “原文의 문제에의 서지학의 적용”을 역시 동등한 항목으로 다룸으로서 다섯개의 항목으로 벌려놓았다. 다만 각각 그 자체의 學的 서술보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나열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 각 항목을 요점있게 표현하기 어

41) *Esdaile's Manual of Bibliography*, fifth revised edition by Roy Stokes Metchen: The Scarecrow Press, (1981), 본디 이책은 1931년 처음 출판된 이래 1932년 2版, 개정3판(1954), 4차인쇄(1958), 5차인쇄(1963) 개정4판(1967) 개정5판(1981)을 거듭한 것이다.

렵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요컨대 에스데일과 스톡에 따르면 체계서지학은 도서의 목록으로서의 서지학의 개념, 목록의 작성자로서의 서지학자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자리잡으면서 여러 면에서 이해하기가 가장 쉬운 영역이며 궁극적인 목적은 인쇄되고 출판된 모든 도서의 目錄化 작업이다.<sup>42)</sup> 이 서지학의 영역에는 “열거”와 “체계”의 두 용어가 있는데 “열거”의 개념은 더 이상의 문제를 고려치 않은 채 단지 목록하는 일을 말해, 어떤 서지적 도구에 있어서도 記入의 배열이 매우 큰 중요성을 갖는 체계화된 목록이 아니면 거의 쓸모가 없어진 지금에는 그다지 비중있는 것은 아니다. 단 한가지의 옳은 방법만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하는 일은 되도록 많은 類型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혹은 비평서지학은, 도서가 서지학자의 손에 들어왔을 때 記入 이전에 각각의 기입을 위해 도서의 특성을 記述해야 할 필요성에서부터 성립된다. 우선 이 한 권에는 어떤 저술 또는 저술들이 들어 있는가, 둘째 이 저술은 어느 版인가, 셋째 이 도서자료의 版은 완전한가 등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이다. 가장 간단한 도서관 목록기입이 이들 문제에 답을 주겠지만, 그것과 정식의 記述서지학에서의 記述의 다른 점은 細部 수준의 차이에 있다. 著作業, 인쇄의 순서, 인쇄의 날자와 장소, 도서本體의 형태, 도서제작의 기술, 활자인쇄, 장식 등이 그 대상이다.

역사서지학은 비평서지학과 긴밀한 관계에 있으면서 단순한 도서의 역사가 아닌 도서의 제작과 배포에 관계되는 종이제작, 活版術, 인쇄, 삽화, 장정, 저작업, 출판, 도서판매, 도서취미등등의 총체적 현상의 역사를 다룬 것으로 모든 다른 영역의 서지학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연구라 할 수 있다.

도서의 서지학적 검토의 마지막 주된 產物은 서지학적 詳記로 그것을

42) 도서의 개념에 필사본이 빠진점은 예의 서양에서의 도서의 개념=인쇄본이라는 점에 기인하는 것이다.

잘 記述하는 능력인데 이가 곧 記述書誌學이다. 이같은 활동으로부터 이루어진 목록이나 서지는 그 목적에서 체계서지학의 순수한 나열적 측면과는 매우 다른데 後者는 기록이고 前者는 서술이다. 記述서지학은 도서의 서지학적 특성을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서, 역사서지학에 근본을 두고 저술의 전반적 분석을 앞에 내세워 이룩한 記述的 작업이며 이로부터 결과된 목록이나 書誌는 더 나아가 서지학적 분석의 기본도구를 제공한다.

原文의 문제에의 서지학의 적용인 原文書誌學은 그 목적이 玄學的이거나 독특하고 개별적인 것이 아니다. 또한 원문의 문학적 측면에 비평적 평가를 내린다는지 원문연구에 있어 물리적인 증명을 내리는 것도 아니다. 이는 오히려 분석서지학의 결과가 원문의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결정해보고자 하는 것으로 그 분석은 도서가 著者로부터 讀者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명백하게 들추어내는 것이다. 결국 애초의 저자로부터의 원문 내용이 어떻게 독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것인지 분석적 방법을 통해 추구하는 것이 원문서지학의 내용으로 귀착되는 것이다.

(5) 로버트 B. 하몬(Robert B. Harmon)<sup>43)</sup>

既存의 연구들을 토대로 해서 80년대에 들어와 가장 괄목할만한 서지학 연구로 간주되는 하몬(1932-)의 이 저술은 그 구성이나 용어의 표현, 전개등에 있어 세밀하고 개념이 명료하면서도 평이하게 표현되어 서지학 연구방법의 전문적 入門書로서 가장 권할 만한 것이다.

그는 “書誌學”이 명백한 용어의 개념의 결핍때문에 “열거” “체계” “분석” “비평” “기술” “역사” 혹은 “원문” 등의 수식 형용사가 붙는 것이지만 한마디로 말할 때 서지학은 도서와 그 밖의 기록자료에 관한 연구를 뜻한다고 말한다. 특기할만한 것은 記錄資料(graphic materials)

43) R. B. Harmon, op.cit.

를 도서에 부가시킨 점으로 오늘날의 서지학 연구는 도서와 함께 그 밖의 모든 인간사상의 매개물과 관련된 마이크로 형태, 영화, 테이프 기록, 오디오테이프, 그리고 그밖의 대상물이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다.

60년대 이래 이미 관례화된 이같은 개념은 특히 80년대 후반, 90년대에 들어서면서 CD-ROM을 비롯한 각종 新種 기록매체가 나타남으로서 서지학의 판도를 더욱 넓혀가는 형편이다. 비록 관례화된 개념이라 할지라도 하문의 지적은 기존연구에서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지학이 學(science)이나 術(art)이나 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합의점에 다다르지 못했으나 방법을 뜻하는 科學, 효과적인 제시를 의미하는 技術은 서지학에 모두 적용되어 그 중간 어디쯤에 해당되는데 技術은 도서와 그밖의 자료를 기록하는 기술을 뜻하며 과학은 도서의 발전과 현존하는 기록에 필요한 것으로 서지학의 가치는 그 명칭이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學者, 연구자, 그리고 일반 독자에게까지 봉사하는데에 있으므로 그것이 學과 術의 어느쪽에 불리우건 큰 문제는 아니라고 그는 지적한다.

여기서도 역시 크게 물리적 실체 혹은 형태적 대상으로서의 기록자료에 대한 연구인 分析 또는 批評書誌學(Analytical or Critical Bibliography)과 지적 실체로서의 기록자료의 연구인 列舉 혹은 體系書誌學(Enumerative or Systematic Bibliography)으로 兩分했다. 前者의 목적은 정확하고 명백한 記述로 원문서지학, 역사서지학, 記述書誌學이 이에 속하며 後者의 목적은 논리적이고 유용한 정리에 의한 각각의 도서 혹은 그밖의 기록자료에 대한 정보를 집합할 것으로 10種의 각종 書誌를 들었다.

말하자면 앞서의 에스데일과 스토크의 그것과 유사한데 각 부분에 대해 보다 명료한 설명과 함께 분석 혹은 비평서지학 내에 구체적인 분과로서 원문서지학, 역사서지학, 기술서지학을 묶었다는 점이 돋보인다.

또한 하나의 학문적 분야로서의 서지학의 발달, 서지학과 서지학자,

서지학에서 다루는 事物 혹은 物品資料를 서지학의 특성과 구조와 함께 기본적인 소개의 章에 담고 이어서 열거서지학의 章, 분석서지학의 章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나간 점도 기존 연구들이 보여준 다소의 산만성으로부터 탈피한 것이다. “열거서지학”과 “체계서지학”중 어느 용어에 우선권을 주느냐의 문제에서 항구성을 위해 택했다는 “열거서지학”은 넓게 말해서 정보를 생산자로 부터 궁극적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중간매체 또는 기구라 할 수 있으며 보다 전문적으로는 주어진 주제나 범위에 있어서 기록물에 대해 간단하게 혹은 상세하게 서술한 목록이다. 그 종류로는 시대, 장소, 언어, 주제, 저자 혹은 목적등에 제한되지 않고 어떤 국가에서든 출판된 자료의 목록인 一般 혹은 國際書誌(General, or Universal Bibliographies), 한 특정한 국가에서 생산된 포괄적인 저술의 목록인 國家書誌(National Bibliographies), 국가서지와 거의 비슷하지만 상업적 도서를 위한 자료의 목록인 商業書誌(Trade Bibliographies), 한 주제에 관해 모은 자료목록인 主題書誌(Subject Bibliographies), 한 사람의 著者에 의한, 혹은 관한 저술목록인 著者書誌(Author Bibliographies), 어떤 주제 내에서의 “최선의 도서” 목록인 選擇書誌(Selective or Elective Bibliographies), 愛書家 또는 藏書家에 의해 수집된 도서목록인 藏書家書誌(Bibliophilic Bibliographies), 특정기관의 소장목록인 目錄(Catalogs), 각종 書誌, 索引, 抄錄등의 2차 자료를 被收錄資料로 하고 있는 書誌의 書誌(Bibliographies of Bibliographies), 어떤 주제에 대해 어떤 정보를 줄 것인가의 내용을 담은 목록인 文獻案内書(Guides to the Literature)등을 들 수 있다.

分析書誌學(또는 批評書誌學)의 3분과 중 역사서지학은 각각의 도서 혹은 그외의 기록자료 및 그것을 구성하는 文字, 삽화, 인쇄등등의 각종 항목과 그것을 생산한 인물, 기관 그리고 각종 機具의 역사이며 原文서지학은 原 著者 의도대로의 원문과 版과 인쇄를 통해 전파된 傳本의 연구와 비교로 원문서지학자는 출판된 저자의 저술과 저자의 시대에

깊은 지식을 가져야 하며 아울러 當代의 인쇄와 출판 현실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끝으로 技術書誌學은 形態의 명확한 物理的 記述을 하는 것으로 도서의 合篇문제, 活字, 紙質, 挿圖, 裝釘, 標題, 標題語, 워터마크<sup>44)</sup> 등에 대한 상세한 연구를 뜻하며 원문서지학과 마찬가지로 명확하고도 경제적으로 도서의 물리적 형태를 묘사하기 위해 한 시대의 工學的 상태의 산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기술서지학은 “아이디얼 카피(ideal copy)”와 모든 그의 異本에 대한 확인이 중요한 부분인데 “아이디얼 카피”란 가능한 많은 종류를 검토한 후 구성된 한 版의 初刷本 중 가장 완벽한 本을 말한다.

이상 개괄적인 略述로서 英語圈의 대표될만한 서지학의 연구방법들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언어능력의 획득, 언어에서 文字文化로의 변화에 이어 제3의 정보혁명인 인쇄술의 발명이 이후 전개되는 서지학에 미친 결정적인 영향과 마찬가지로 제4의 정보혁명인 정보이론과 컴퓨터의 등장이 앞으로 서지학계에 미칠 영향 또한 지대할 것으로 보여진다.

1960년대 이래 각 분야에서 엄청난 분량의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컴퓨터를 사용한 機械可讀型데이터베이스, 정보의 검색, 온라인 시스템은 빠른 속도로 書誌情報를 비롯한 도서관업무의 혁명을 가져오고 있으며, 미래의 “종이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Paperless Society)에서의 도서의 개념이, 하물며 필사본과 인쇄본을 뚜렷이 구별지어 도서=인쇄본의 개념으로 정립한 서양에서 어떻게 변천될지 모르는 현시점에서 서지학을 취급하는 시각도 다소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시각들은 주로 서지정보의 작성이나 이용적인 측면, 즉 열거 또는 체계서지학에 해당되는 것들로서 1. 체계서지학에서의 컴퓨터의 적용, 2. 서지작성에 있어서의 컴퓨터의 사용에서부터 총체적인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입장에서 보는 서지학, 3. 고프만(Goffman)의 전염성

44) Watermark: 현대적 製紙機가 나오기 이전까지의 종이에 넣은 내 비치는 무늬



이론(Epidemiological theory), 브래드포드(Bradford)의 분산법칙(Law of scaffer), 문헌이용율 감소법칙(Obsolescence) 등의 서지학에의 적용제안 등등을 들 수 있다.<sup>45)</sup>

그러나 이 관점들 역시 발달된 각종 기계와 컴퓨터등의 새로운 道具(tool)를 연구의 전개에 적용하고 응용시킨 것일 뿐 근본적으로 인간사상의 매개물을 취급하고 체계적인 서지정보를 구성, 검색, 제공한다는 서지학 본연의 연구이념 자체의 변천을 뜻하는 것이 아닐 뿐 더러 傳來의 서지학 연구방법의 어느 한 부분에만 적용되어 일반적인 맥락과는 달리 하는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설명은, 지면관계도 있고 해서, 일단 本考에서 제외시켰음을 밝힌다.

### 3. 佛語圈<sup>46)</sup>

앞서 본 대로 目錄이나 書誌의 개념으로 귀착된 bibliographie(이하 書誌로 稱), 도서와 관련된 제반 요소를 포함한 학문으로서의 bib-

45) •R. B. HARMON, op.cit., pp.148-157

•B. C. Brookes, "Jesse Shera and the theory of bibliography" *Essays on Bibliography*, op.cit., pp.63-76

•C. D. Batty, "The Use of Computers in Bibliographical Compilation" in Robinson, Antony Meredith Lewin. *Systematic Bibliography*... 3rd ed.(Hamden, Conn: Linnet, 1971) pp.78-86

•Margaret Lodder, "The Application of Computers to Systematic Bibliography" *ibid.* 4th ed., (New York:Saur, 1979) pp.83-95

46) 여기서의 불어권이라 함은 대체로 Latin권이라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서구라과 본 대륙의 각 국가들은 내부에서 볼 때 각각 그들 나름의 특성이 분명하지만 그들 이외의 세계에서 볼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등의 根幹의인 시스템은 유럽공동체의 특성을 나타내듯 매우 흡사하여 도서관시스템이나 학문의 체계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여기서는 본인이 참조할 수 있는 유일한 라틴언어권이 불어이고 또 앞서 누차 강조했다 bibliographie나 bibliologie의 용어 및 개념의 형성과 발전과정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으므로 불어권으로 못박은 것이다. 英佛語로 번역된 유명한 독일의 Georg Schneider의 「Handbuch der Bibliographie」(서지학편람)가 書目편찬의 역사와 이론을 위주로 서술하였음을 원래의 개념으로 환원시킨 불어의 Bibliographie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liologie(이하 書誌學으로 稱), 그리고 주로 古代와 中世의 寫本을 연구하는 philologie(이하 文獻的으로 稱)은 총체적인 서지학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로서 현재 이 분야들의 각각의 연구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서 프랑스에서의 서지학 연구방법 및 현황을 파악하기로 한다.

前述했듯 20c 들어와서 개념이 완전히 정착된 書誌는 크게 一般國際書誌(bibliographie générale internationale), 一般國家書誌(bibliographie générale nationale), 그리고 特殊書誌(bibliographie spécialisée)로 구분되거나<sup>47)</sup> 혹은 一般書誌 내에서 국제서지와 국가서지로 양분하여 특수서지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놓는다.<sup>48)</sup>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 개념적으로 보아 보다 체계적으로 세분화되었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49)</sup>

收錄書誌(bibliographie cachée) : 하나의 저작이나 정기간행물 記事 내부에 실린 참고목록

現行書誌(bibliographie courante) : 週, 月, 3개월, 또는 年間등 정규적인 간격으로 同 시기동안에 출현한 도서를 수록

直接書誌(bibliographie de première main) : 도서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전문목록 작성자에 의해 만들어진 목록

間接書誌(bibliographie de seconde main) : 他 목록에 존재하는 서지의 내용을 편집한 서지

完全書誌(bibliographie exhaustive) : 어떤 주어진 분야에 대해 한가지 예외도 없이 모아진 모든 참고자료의 總體, 생략된 것이 있다면 작성자의 본의아닌 실수이다.

47) L. N. Malcès, *La bibliographie*, 4<sup>e</sup> éd, op. cit.

48) \_\_\_\_\_, *Manuel de Bibliographie*, op.cit.

Malcès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서지理論家로 1985년에 출판된 後者에서 크게 일반서지와 특수서지로만 나눈 이유는 1960년 이래 技術的 시대로 돌입되면서 도입된 MARC시스템에 굳이 세분화시키기 보다는 兩者로의 大別이 무난하기 때문이다.

49) Marcelle Beaudiquez, *Guide de bibliographie générale*, (München, New York, London, Paris:K. G. Saur, 1983), pp.44-46

一般書誌(bibliographie générale) : 모든 주제를 취급한 기록물의 서지

一般國際書誌(bibliographie générale internationale) : 조사대상 기록물의 현저한 증가로 20c에는 지속되지 못한 서지 즉 19c까지의 국제서지를 말한다.

國際書誌(bibliographie internationale) : 한 국가에서 출판된 기록물의 서지

回顧的書誌(bibliographie retrospective) : 다소 오래된 기간 중의 기록물을 수록, 적어도 진행되고 있는 年度보다는 先行되어야 함.

選擇書誌(bibliographie selective) : 그 성질이나 年代 등의 작성자의 기준에 따라 선택된 기록물의 서지

特殊書誌(bibliographie spécialisée) : 뚜렷하게 어느 하나 또는 몇몇 주제만을 취급한 기록물의 서지

萬國書誌(bibliographie universelle) : 國際書誌를 지칭하기 위해 19c까지 사용된 용어

이상의 것들은 이미 개념이 書誌로 귀착된 bibliographie를 보다 상세히 구체화시킨 최근 프랑스의 방법과 實際로 대표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書誌에 대해 집고넘어가야 할 점은 변천되어가는 시대에 맞추어 끊임없이 적절한 용어를 선택하고자 하는 프랑스학계의 노력이다. 오늘날과 미래의 multi-media도서관의 자료는 이전의 도서와 이에 준하는 자료들에 비해 그 품목과 수량의 엄청난 증가를 가져왔고 가져올 것이다. 도서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書誌라면 다른 자료들도 그에 준하는 용어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新造語 조성이 거론되고 있다. 즉, 디스크에 관한 기록은 discographie, 영화는 filmographie, 電子冊은 electre-bibliographie, 지도는 cartographie, 圖鑑은 iconographie, 樂譜는 musicographie 등인데 前者 3項은 새로운 용어 조성이 가능하나 뒤의 3항은 地圖製圖, 肖像學, 음악평론 등의 뜻을 가

진 기존의 용어이기 때문에 다소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sup>50)</sup> 이들 모두 아직 일반화된 개념은 아니나 처음의 bibliographie처럼 앞으로 분명 채택되어질 용어들이다.

文獻學의 범위나 方法論은 이미 그 정의에서도 보았듯이 마치 철학이나 史學등등의 오랜 기존학문을 論하는 것과 같아 어떤 시대의 어떤 주제를 택하여 연구할 것인가가 문제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이 분야를 가장 집대성하고 있는 프랑스의 高等研究院(Ecole Pratique des Hautes Etudes)<sup>51)</sup>, 4 section, 歷史와 文獻學部에서 취급되는 연구들을 소개하는 것으로서 그 연구방법을 제시하기로 한다.

古代의 셈, 이집트, 아씨리아, 바빌로니아, 수메르, 그리스, 로마로부터 中東을 비롯한 동양권의 모든 古代文化圈의 文獻學, 즉 그들의 言語, 文字에서부터 文學이나 法律에 이르기까지 모든 收錄내용을 연구하는데 특히 그 書寫材料에 따라 金石學, 파피루스文書學, 또는 특별한 서사재료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古文書學등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古代에 이어 中世의 라틴 言語나 文學, 비잔틴 文獻學, 이슬람圈의 문헌학 및 中國, 韓國, 日本등 동양권의 문헌학과 포괄적으로 圖書의 歷史와 文化등도 연구된다.

요컨대 현재보다는 古代와 中世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回顧的인 學으로 각 시대나 각 지역의 人間思想의 表出對象, 즉 언어, 문자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학문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수록하고 있는 記錄物(文獻)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마지막으로 포괄적인 書誌學, bibliologie에 대해 살펴보면 그 용어 자체의 最新性으로 인해 方法論上의 구체적인 연구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學界에서의 그에 대한 개념은 이미 깊게 정착화되어 있다. 前述한 대로

50) L. N. Malcès, *Manuel de bibliographie*, p.16

51) 碩士이상의 學者들에게만 입학이 허용되며 세미나중심으로 연구하는 국립대학원과 같은 곳으로 제4섹션, 역사와 문헌학부 內에 만도 130種 넘는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다.

書誌, 일반적인 圖書館學(bibliothéconomie), 愛書 또는 藏書취미, 그리고 도서의 역사등등을 포함한 도서의 학문으로서 범위가 광범위하여 그 구체적인 專攻마다 많은 學者와 著述이 그 범주 내에 들고 있으나 書誌學의 方法論上의 연구로는 로베르 에스티발(Robert Estivals)이 거의 독보적인 존재로 군림하고 있다.<sup>52)</sup>

그 이론에 대해서는 상당한 분량의 언급이 있어야 하므로 자세한 것은 後日의 집중적인 연구로 미루기로 하고 핵심적으로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풀이된다.

서지학은 文字의 과학으로 커뮤니케이션學의 일부를 형성한다. 이것이 학문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과학(sciences)에 先行되는 [藝]術(arts)과 技術(techniques), 그리고 科學의 기본적인 세 요소로 분리되며 정신적 측면과 물리적 측면을 갖고 생산된 도서의 학문을 규정하기 위해 그 목적과 방법을 명백히 해야 한다. 즉 그것이 탄생하게 된 궁극적인 목적, 그 實現, 그리고 필요성의 세가지를 명백히 함으로써 arts와 techniques, 그리고 sciences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것이다. 書誌學에 적용되는 arts란 美, techniques은 有用性을 뜻하는 것으로 도서를 물리적으로 출현시키는 것이 그들 목적이며 sciences는 물리적인 면과는 관계없이 도서의 現象을 설명하고 그것이 지배하는 法則을 규정짓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 요소 위에 圖書의 學으로서의 서지학은 연구자의 심리 상태(研究動機를 뜻함)로부터 출발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되어지는 人文科學이며 그 연구의 목적은 도서 출현의 의미를 文化, 知識, 커뮤니케이션, 教育, 社會·政治 등 諸般 分野 속에서 폭넓게 찾는 데 있는 것이다. 결국 크게 나누면 圖書, 둘째 도서 및 그 밖의 커뮤니케이

52) 보르도(Bordeaux) III 대학교수

선 방법, 셋째 도서와 사회라는 세가지 범주내에 들어가는 것이다.<sup>53)</sup>

서지학의 연구상황과 방법은 역시 서지학의 모태가 되는 도서의 목록인 書誌에서 출발하여 페뇨(Peignot)에 이르러 보다 해박하고 역사적이며 도서관학적인 요소를 가미시킨 記述書誌學(Bibliologie descriptive)이 근본이 되어, 모든 다른 인문과학에서와 마찬가지로, 方法과 하나의 學問分野로서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과학적 서지학이 출현하게 되었다. 가장 먼저 도서의 연구에 적용된 방법은 페뇨, 이어서 오펀레(Otlet)와 이윈스키(Iwinsky)에 의해 無名으로 인용되었던 量的이고 통계적인 것으로, 부분적인 정보들과 간단한 數學的 계산으로 부터 假想의 회고적이고 국제적인 統計를 완성하는 計量書誌的 方法이었다. 20C에 들어와 새로운 방법론은 끊임없이 거듭되면서 原文과 著者에 관련된 변천적이면서도 共時的 상황, 文獻, 版, 印刷記號學으로 부터 출발하는 形態的인 서지학, 文體 커뮤니케이션, 出版團體, 역사적 분석, 著述의 생산과 배포의 社會學등에 도서를 적용시키면서 과학적인 탐구를 지속하고 있다.<sup>54)</sup>

이러한 理論에 기반한 실제적인 연구는 ENSB(E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Bibliothécaires : 國立高等司書學校)<sup>55)</sup>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回顧的 書誌學(bibliologie retrospective)과 現行的書誌學(bibliologie contemporaine)으로 크게 나뉘어 前者에는 上記 방법론에 입각한 도서의 출현 및 그 역사가, 後者에는 도서와 관계되는 1. 다양한 범주의 著者들, 知的 所有 및 批評 2. 出版·出版社·出版者 및 그들의 역할과 기능 3. 物理的인 製作과정, 즉 組版, 삽화, 인쇄, 細工, 裝釘, 제조가격, 그리고 技術的 改善의 영향 4. 보급 및 배포의 방법, 배

53) Robert Estivals, "Bibliologie et Prospective", dans *Le Livre Français*, établi sous la direction de Jalien Cain, Robert Escarpit, H. J. Martin, (Paris : Imprimerie national, 1972) pp.283-307

54) \_\_\_\_\_, *Le Livre dans le Monde*, (Paris:Edition RETZ, 1983) pp. 9-22

55) Lyon에 所在하는 대학원과정의 전문학교로 고급사서를 배출한다.

포 단체, 書店, 도서가격, 5. 讀書 및 讀者연구 6. 活字媒體로서의 新聞 연구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學際的인 요소로 커뮤니케이션學, 社會學 등이 연관되어 연구되고 있다.

이상은 이론적, 실제적 양 측면에서의 서지학을 살펴본 것으로 用語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는 圖書文化라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

#### IV. 展開方向을 위한 提言

여기서의 전개방향이라 함은 지금까지의 諸理論을 종합하여 우리나라, 나아가서는 東洋圈 또는 세계의 통일된 서지학의 연구방법에 관한 것을 뜻한다. 모든 학문, 특히 그 方法論의 國際化 시대에 있어 통일된 이론과 방법의 전개는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는데 동서양의 지역적, 시대적 異質性으로 다소의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겠으나 앞서도 이미 보았듯이 쌍방의 서지학 내의 각 분야가 상당 부분 동질성을 띠고 있고 또 연구방법론 자체가 지엽적인 문제보다는 큰 흐름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연구방향으로의 통합은 어려운 문제가 아닌듯 싶다.

앞에서 살펴본 바 동양 전래의 서지학의 영역도 뚜렷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용어, 정의, 개념 및 學的 확립은 西歐圈에서 오랜 시기를 거듭하면서 이룩했음을 보아왔다. 따라서 既存의 동양의 서지학을 서구의 체계에 대입시키면서 서로간의 특수성을 加減한다면 합리적인 것이 되리라 짐작된다.

요컨대 동서양을 막론하고 서지학의 연구방법은 다음의 세가지로 크게 요약된다.

첫째, 도서 및 각종 기록물의 情報源을 어떻게 완전하게 이용자에게 전달하느냐의 측면에서 書誌情報를 구성, 검색, 제공하는 데에 대한 연구

둘째,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도서 또는 각종 文字記錄物의 淵源, 역사, 물리적 형태등을 연구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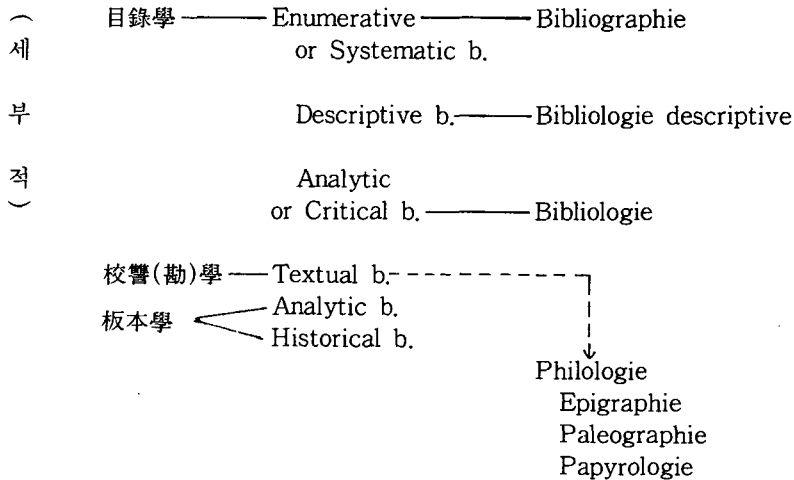
셋째, 도서를 그와 관련된 人物, 機關(도서관, 출판사 정보센터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知的 또는 技術的 측면등의 각종 事象과 함께 연구하는 것이다.

물론 모든 학문연구의 첫걸음인 方法論, 즉 書誌學의 기본적인 理論 研究는 論外로 친 것이다.

이해의 도모를 위해 동양과 영어권, 불어권의 각 용어와 이들의 상관 관계를 도표로 구성해보자.

도서와 관련되는 모든 現象을 포함하는 廣義의 書誌學이 서지학 그 자체이므로 書誌學, Bibliography, Bibliology를 동일선상의 上位의 개념에 놓고 그 아래에서 세분화시키면:

(포괄적) 書誌學 ——— Bibliography ——— Bibliologie



이들을 비교해보면 결국 용어 및 다소간의 개념이나 범위의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체계를 구사하고 있다.

이들이 가지는 가장 큰 차이는 서지학을 도서의 학문이라고 할 때 도서의 개념을 어디에 두느냐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이다. 동양에서의 도서의 개념은 書寫材料가 무엇이나에 상관없이 文字가 기록된 것은 일단 도서로 보고 있는데 目錄學, 校讐(勘)學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본디 木板에서 따온 板本 學도 木板本은 물론 筆寫本과 活字本, 때로는 종이 이전의 古代 서사재료에 기록된 것들까지 그 대상으로 삼는다. 이렇듯 동양에서의 광범위한 도서의 개념에 반해, 아마도 동양에 비해 천년 후부터야 종이冊子를 가질 수 있었다는 사실, 인쇄술이 발명된 후 동양과는 비교할 수가 없게 엄청난 도서량의 증가를 가져왔다는 사실등이 큰 이유로 작용했을 듯 싶은데, 서양의 그것은 인쇄본에만 한정시키고 있다. 도서의 나열목록이라는 가장 순수한 개념의 각종 書誌에서조차, 오늘날에 와서는 도서관이 다루는 모든 시청각자료까지 서지작업의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필사본은 제외시키는 것이 서양 서지학의 실정이다. 필사의 형태는 金石學(Epigraphy), 古文書學(Paleography), 과피루스 문서學(Papyrlogy) 등에 흡수되며 특히 프랑스는 이들을 포괄적으로 文獻學(philologie)에 넣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기본적 차이점만 파악한다면 명칭은 동양전래의 것을 사용하던 서양식을 채택하던 그 연구방법만은 앞서의 小中大 범위에 적용되는 것이며, 서양의 것을 연구하는 경우는 論外로 치더라도 우리의 서지학 연구에 있어서의 도서의 개념은 전래된대로 筆寫本 木板이나 活字印刷本 가릴 것 없이 포괄적으로 취급해야 동양적 특성을 살리는 것이 될 것이다.

3圈에서 자료의 목록이라는 그 성격이 논란의 여지없이 일치되는 첫 번째 분야는 특히 1960년대 이래 정보화사회를 맞이하여 더욱 포괄성, 다양성, 최신성, 신속성 등이 요구되면서 가장 발전되어가는 추세속에 있다.

書誌의 종류는 이미 살핀 바 대로 그 성격에 따라 다양한데 서지작성의 手作業단계로 부터 데이터베이스化, 기계화된 現 시점에서는 작은 항목으로 세분화하는 것 보다는 크게 포괄적인 一般書誌와 특정한 목적에 의해 구성된 特殊書誌로 大別하고 現행적이던 회고적이던 일반서지에는 一般國策서지와 一般國策서지를, 특수서지에는 주제서지, 선택서지, 저자서지, 상업서지, 장서목록, 서지의 서지<sup>56)</sup> 등을 해당시키는 것이 무난할 듯 싶다.

시시각각으로 產出되는 정보자료가 늘어나고 취급하는 대상 자료도 서를 비롯하여 지도, 악보, 圖鑑 등등의 각종 인쇄물에서부터 實物, 모형, 테이프, 디스크, 필름, CD등 각종 형태의 시청각 자료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여 品目別 정리를 위한 新造語(前述참조)까지 연구될만큼 범위가 넓혀지고 있다는 점을 이 분야의 연구자들은 주의깊게 살펴야 되겠지만 각 항목의 통일된 國際標準書誌記述(ISBD :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sup>57)</sup> 규칙이 탄생하고 이들에 기반한 IFLA의 國際書誌統整(UBC : Universal Bibliographic Control) 계획에 따라 각국의 국가 MARC 포맷에서 1977년 국제적인 UNIMARC로의 전환을 꾀하기에 이르는 現시점에서 지역간 또는 記述上의 격차는 좁혀졌음을 자각하고 이에 相應하는 연구를 꾀해야 할 것이다.

이 분야에도 물론 書誌의 역사와, 보다 이상적인 서지의 구성과 記述을 위한 과학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56) 각 항목의 설명은 앞 章을 참조할 것.

57) ISBD(G)=general(일반), ISBD(M)=monographs(단행본), ISBD(CM)=cartographic materials(지도, 지도첩), ISBD(NBM)=nonbook materials(비도서자료) ISBD(PM)=printed music(인쇄된 악보), ISBD(A)=antiquarian(古器物 혹은 1820년 이전의 도서), ISBD(CP)=Component parts(구성요소 부분들), ISBD(S)=Serial Publication(축차간행물), Ronald Hagler and Peter Simmons, *The Bibliographic Record and Information Technology*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1982) pp.116-117

두번째 분야는 도서의 物理的 형태와 事實的 측면의 연구로 첫번째 분야와 세번째, 즉 도서와 관련된 광범위한 諸般現象을 빼고 남는 것, 구체적인 可視性의 도서에 대한 이모저모의 검토라고 할 수 있다.

記述書誌學을 첫번째와 두번째 분야사이에 놓은 이유는 著者, 타이틀, 出版사항 혹은 對照사항을 취급하는 점에서는 같되 체계서지학에서는 각각의 명칭 또는 단편적인 상황만을 記錄하는 반면 기술서지학은 이들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서술하는 것으로 첫번째에서 두번째 분야로의 移入 과정 정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R. 에스더발도 bibliographie와 bibliologie 사이에 記述的 서지학을 넣고 있으며 영어권은 학자에 따라 각각 兩者에 적용시키기도 한다.

두번째 분야에서 다루는 것은 도서의 原文的 문제, 歷史, 그리고 物理的 形態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原文的 문제는 原文의 文學的 비평이 아니라 著者의 稿本과 이것이 각 版과 인쇄를 거듭하면서 변천되어 가는 내용상의 異同의 비교와 연구로서, 서양에서는 原稿本과 인쇄본을, 동양의 校讐(勸)學에서는 필사본이건 인쇄본이건 간에 原文과 그 傳本을 文獻學에서는 筆寫형태의 原文을 취급하는 점이 각각 다르다.

역사적 측면에는 도서의 역사에 들어갈 모든 부분, 종이, 墨이나 잉크, 木版術, 活版術, 인쇄, 삽화, 裝釘, 출판을 비롯하여 도서와 관계되는 인물이나 기관의 역사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다.

물리적 형태에 관한 것은 역사적 측면에서 다룬 事項 그 자체, 즉 紙質, 墨이나 잉크, 활자, 인쇄, 삽화, 장정을 비롯하여 서양에서의 머릿글자, 워터마크, 摺紙, 동양에서의 版式, 版種, 內賜記, 避諱缺劃등 이외에도 많은 지엽적인 형태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포괄적인 서지학에는 앞에서 본 두 분야를 포함하여 도서와 관련된 일체의 現象事象을 다루는 것이다. 도서와 관련되는 著者, 出版者, 印刷者, 讀者등의 인물, 도서관, 출판사, 인쇄소, 書店등의 기관을 비롯하여 禁書, 검열정책, 제조·판매 가격, 보급 및 배포상황, 독서

현상·출판동향, 知的所有·비평, 技術的 발전, 이외에도 언어적 커뮤니케이션學, 心理學, 社會學的 접근등 다양한 연구가 전개될 수 있는 부분이다. 상당한 學的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이 분야에의 활발한 연구 활동이 기대되는 바이다.

## V. 結

한 學問分野의 定立에 있어 先行條件은 研究方法論의 확립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書誌學을 “어떻게 연구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 그 用語의 성립, 정의, 변천과정에서 부터 동양, 英語圈, 佛語圈의 諸이론을 전개한 후 이들의 공통분모를 찾아 보았다.

서지학에 해당하는 동양 傳來의 연구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음에도 학문적체계를 위한 비평, 분석 및 종합적 고찰의 결여로 그 용어나 연구방법의 전개는 歐美의 그것들을 借用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동서양간 도서의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하기는 하나 결국 서지학은 가장 간결하게 요약할 때 小→大 범위로 도서 및 각종 記錄物에 대한 첫째, 書誌情報의 구성, 검색, 제공에 관한 연구, 둘째 연원, 역사, 물리적 형태에 관한 연구, 셋째, 이들과 관련되는 諸般 現象에 관한 연구로 집약된다.

서지학 전반에 관한 연구방법을 논하게 된 까닭으로 어느 한 부분에 대한 집중적 탐구나 한 이론에 대한 詳述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더우기 理想的인 연구방법의 제시로서는 부족한 점 투성이나 다소 편향적이고 축소된 느낌이 드는 우리의 書誌學界에 本考가 보다 다양하고 활발한 연구전개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參考文獻

- 말갈레스, L. -N., “Bibliographie의 목적과 정의”, 李姬載 譯, 〈圖書館〉, 40 : 2(1985) pp.59-64
- 小見山壽海, 〈書誌學〉, 東京, 1931
- 長澤規矩也, 〈書誌學序說〉, 東京 : 吉川弘文館, 1960
- 倉石武四郎, 〈目錄學〉, 東京 : 汲古書院, 1979
- 川瀨一馬, 〈日本書誌學概說〉, 東京 : 講談社, 1971
- 千 惠鳳, “書誌學의 體系”, 〈國會圖書館報〉 5 : 1(1968, 1), pp.5-15
- 河 東鎬 譯編, 〈書誌學〉, 서울 : 塔文化社, 1979
- Esdaile's Manual of Bibliography*, 5th revised ed. by Roy Stokes, Metuchen, N. J., London : The Scarecrow Press, 1981
- Essays on Bibliography*, compiled and edited by Vito J. Brenni, Metuchen, N. J. : The Scarecrow Press, 1975
- Hagler, Ronald and Peter Simmons, *The Bibliographic Record and Information Technology*, Chicago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82
- Harmon, Robert, *Elements of Bibliographie*, Metuchen, N. J. & London : The Scarecrow Press, 1981
- Padwick, E. W., *Bibliographical Method*, Cambridge & London : James Clarke & Co. Ltd., 1969
- Systematic Bibliography, a practical guide to the work of compilation*, 4th ed. revised by A. M. Lewin Robinson, Munich, New York, Paris : K. G. Saur, 1979
- The Great Bibliographers Series, 6 vol.* Metuchen, N. J. & London : The Scarecrow Press, 1974-1984

1. *Ronald Brunlees Mckerrow* by John Philip Immroth, 1974
  2. *Alfred William Pollard* by Fred W. Roper, 1976
  3. *Thomas Frognall Dibdin* by Victor E. Neuburg, 1978 .
  4. *Douglas C. McMurtrie* by Scott Bruntjen and Melissa L. Young, 1979
  5. *Michael Sadlier* by Roy Stokes, 1980
  6. *Henry Bradshaw* by Roy Stokes, 1984
- Beaudiquez, Marcelle, *Guide de bibliographie générale, méthodologie et pratique*, München, New York, London, Paris : K. G. Saur, 1983
- Bibliographie sélective, 4è éd., éditée par Ecole Nationale Supérieure de Bibliothécaire*, Paris, Lyon : 1984
- Dhal, Svend, *Histoire du livre*, Paris : Edition Poinat, 1967
- Estivals, Robert, *La Bibliologie : introduction historique d'une science de l'écrit*, Paris : Société de bibliologie et de schématisation, Tome 1 : *La Biblioméitie* 1979
- , “*Bibliologie et prospective*”, dans *Le livre français*, établie sous la direction de Julien Cain, Robert Escarpit, Henri Jean Martin, Paris : Imprimerie Nationale, 1972
- , *Le livre dans le monde*, Paris : Edition RETZ, 1983
- , *Schémas pour la bibliologie*, Viry-Chatillon : Sediep, 1976
- Fevbre, Lucien, et H. J. Martin, *L'apparition du livre*, Paris : Albin Michel, 1971
- Frieden, P., “Bibliographie, étimologie et histoire du mot”, *Revue de synthèse*, 1934, pp.45–52, 116–119
- Langlois, Charles V., *La bibliographie*, 4è éd., Paris : PUF, 1977.

(Que sais-je?n° 708)

\_\_\_\_\_, *Manuel de bibliographie*, 4<sup>e</sup> éd., Paris : PUF, 1985

Mortet, Charles, "Leçon d'ouverture du cours de bibliographie",

*Revue international de l'enseignements*, 1988, pp.18-31.

## Methodology of bibliography

Lee Hee-Jae\*

### ABSTRACT

To give any science or discipline an assured status, the most important and fundamental thing is to establish the method of research.

“Bibliography” is an ambiguous and much-abused term in any area, oriental, anglo-american, or latin countries. This study is a little essay to examine the different theories of these three areas and to synthesize the common factors. It is devised three parts : the definition of the term itself and the transition of its concept, the introduction of each theory, and a proposition of methodology based on these theories.

In all, bibliography is commonly understood to mean (i) a list of books and other graphic materials arranged according to some system, (ii) the study of books as material objects include historical and textual problems, (iii) as a science of books, the systematic study of all conditions of its production, diffusion, and utilisation, including the study of factors of explication of phenomenon, on the political, economical, technical, social and culturel plans.

---

\* Associate Professor, Depar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okmyung Woman's University.